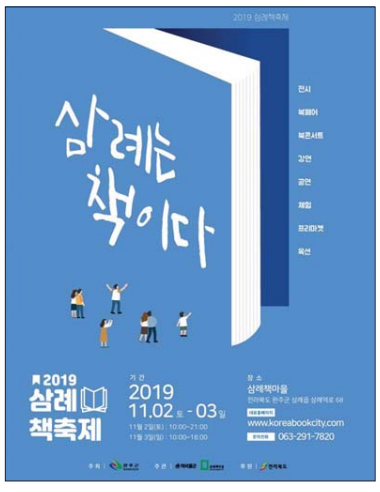
완주에서 펼쳐지는 책의 향연

삼례 책마을 책축제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열려

고서 경매 · 전시 · 강연 ·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



완주 삼례책마을(이사장 박대헌)에서 책 축제가 펼쳐진다.

23일 완주군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삼례는 책이다'를 주제로 '2019 삼례 책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고서 경매, 전시, 강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축제와 연계한 전시로는 2020년 3월 29일까지 '시집 연애보—전주 송기화의 사랑일기' 展이 개최된다.

시집 단 한권만을 선보이는 독특한 전시다. 전주 출신의 문학도 송기화의 미발표 시집 원고를 통해 1940년대의 연애와 결혼 풍속도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제3회 삼례책마을과 함께하는 동아옥션 특별기획전'도 열린다. 축제 첫날인 11월 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으로 국내에 고서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고서 애호가들에게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대표 출품작으로 〈조선 박람회 기념 사진첩〉(1930년 발간), 박생광의 〈백로도〉 등을 비롯해 최현배의 〈중등조선말본〉, 미당 서정주가 발사를 쓴 김윤식의 〈영랑시선〉 초판본 등이 있다.

문화이벤트로도 준비돼 있다. 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정재완 교수와 축제 당일 공개될 스페셜게스트의 대담 '치맥과 책이 있는 풍경', 이튿날 3일에는 북디자이너 정병규의 '책의 바다로 간다'라는 특별강연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그 외 우드버닝 북디자인과 독립출판 플리마켓,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준비돼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삼례 책축제는 지역문화 활성화와 완주군 문화관광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국제한식조리학교,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선정

국제한식조리학교 전경.

국제한식조리학교(학교장 민계홍)는 '2019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며, 계속 고용시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 농생명식품기업, 탄소관련기업, IT기업 등이며, 신청자격은 청년인재 만 39세 이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제한식조리학교 행정실 063-221-221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제한식조리학교는 최근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도내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한국의 전통한지' 출간… 국가기록원 직원 집필 참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직원이 집필에 참여한 '한국의 전통한지'가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성철스님, 법정스님, 노무현대통령 인물화로 유명한 수묵화가 김호석 화백이한지 전문가 3명과 공동 집필한 것이다.

공동 집필자는 국내 유일의 정부부문 한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임현아 연구개발실장, 닥나무 연구분야 최고 전문가인 산림청 국립수목원 정재민 박사, 한지정책 행정 전문가인 행안부 국가기록원 박후근 행정지원과장이다.

책은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전통한지 산업의 아픈 현실을 가감없이 지적한다. 2015년 옛 행정자치부의 '훈장용지 개선을 통한 전통한지 원형재현 사업'을 성공사례로 소개하고, 종이문화재의 한지 사용 의무화와 한지 품질 기준 마련 등 전통한지 진흥 방안 9가지를 제시한다.

저자들은 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향후 영문판을 출판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4년여의 문헌연구와 현장답사, 장인 인터뷰 등 철저한 고증을 거친 결과물"이라며 "위대한 문화유산인 전통한지가 역사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한지 품질 표준화와 사용 의무화를 통해 현재의 기록 재료로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관객이 직접 만든다'

전주영화제작소, 관객 프로그래머 31일까지 모집

전주영화제작소는 관객들이 직접 영화제를 기획, 구성해 다른 관객에게 전파하는 '관객 전도 영화제'를 오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관객 전도 영화제는 한국독립 영화들로 프로그래밍한 기획전을 공모, 선정해 소규모 영화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관객들에게 영화관의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에 심층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전주영화제작소는 이번 영화제 진행을 위해 '관객 프로그래머'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관객 프로그래머는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으로서 행사 기간 활동에 무리가 없는 관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을 받아 내부심사를 거쳐 1팀을 최종 선발한다.

선정된 이들에게는 영화제의 관객 프로그래머로 공식 소개되며, 소정의 활동비 지급과 함께 행사 기간에 상영되는 모든 작품의 관람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 후 영화제가 진행되기 전까지 영화관 실무진과 함께 작품 선정 및 게스트 섭외를 진행하게 되며 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씨네토크의 모더레이터로서 활동하게 된다.

접수는 이메일(theque@jeonjufest.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지원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화제작소 홈페이지(http://theque.jeonjufest.kr) 또는 담당자(063-231-3377)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고창농악보존회, 고창농악의 문화유산 가치조명 학술대회 개최

고창농악이 지역공동체 삶속에서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는 '2019 고창농악 학술대회'가 26일 오후 1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열린다.

고창의 농악문화와 고창농악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공동체문화유산인 고창농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 가야할 길, 그리고 남겨야 할 가치를 탐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 발표자들도 눈에 띈다. 송기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의 '영무장시대 농악인들의 예술지향과 농악문화',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 고문의 '고창농악 판굿 형성에 관한 소고-고창지역 마을굿의 영향을 중심으로', 가미노치에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기관연구원의 '고창농악보존회가 고창의 지역농악과 함께 걸어온 길-보름굿 전수를 중심으로', 시지은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원 연구원의 '고창농악의 문화유산적 현황과 미래적 전망'이 발표되며 토론자로는 조세훈 남원농악보존회 기획실장, 이용식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교수, 김성식 박사, 권은영 전북대학교 강사, 김영희 고창농악보존회원, 남기성 연출가가 출연한다. 종합토론 좌장은 김혜정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고창농악 학술굿판은 학술발표와 함께 다양한 행사도 진행되는데 고창농악보존회의 문굿, 풍장굿 공연과 고창농악 영상시청, 고창농악 사진, 소품전도 마련됐다.

구재연 고창농악보존회장은 "고창농악의 핵심적이고 이어 나가야 할 가치를 탐색하며 지금 서있는 길에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논해 보고자 합니다. 보고, 듣고, 즐길거리 풍성한 이번 2019 고창농악 학술굿판에 함께하시어 고창농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했다.

한편, (사)고창농악보존회는 2011년 '풍물굿 연구의 진전을 위한 젊은 풍물굿 연구자들의 학술굿판'과 2012년 '제2회 고창풍물굿 학술대회 고창농악의 생명력 그리고 고창농악의 뿐을 자리', 2013년 '제3회 고창풍물굿 학술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